

교육-문화-포교 '역점'

조계종 예산안으로 본 내년사업

올해보다 6.5%증액 153억 편성

조계종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5% 증액된 153억1천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새해 예산안은 5~19일 열린 정기중앙총회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총회의 거듭된 유회로 12월 열릴 예정인 임시총회에서 확정된다. 고산 전 총무원장 당시 편성된 예산이지만, 새 총무원장 정대승이 고산스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에 따라 이미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큰 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불교자주권 수호 △종단의 안정과 화합 △분발사 및 산하단체 육성 △불교문화유산 △수도권 포교활성화 △불교정보화를 6대 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같은 방향은 지난 7월 발표한 종단중장기발전계획 가운데 2000년에 시작되는 사업이 반영됐다.

예산안을 편성한 기획실은 2년 연속해 전년보다 삭감해 편성한 예산을 3년만에 증액해 편성했다. 98년에는 149억여원을 편성하고도 IMF 외환위기에 따라 일률적 10%인축 운영했다. 올해도 98년보다 5% 삭감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은 문화재관람료 수입의 증대(99년 8월 현재 전년 대비 4%), 관람인원의 7% 증가, 직영시설 수입의 증대(99년 6월 현재 전년 대비 7%)와 전반적인 경제회복이 종단의 세입 여건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교구본사의 중앙분담금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 총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분담금은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18% 증가했다. 각 부서와 교육원, 포교원의 내년도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찰 회계지침 수립 불교사회교육원 설립 군포교 제도개선 착수

단 문장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승려본한신고 실시 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 기획실

농지법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등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법령 개정과 불교계의 대정부 현안 대처, 각종 종교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와 대응활동에 중점을 두고 불교자주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통합중무행정 전산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휴대전화에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 재무부

전국 사찰의 재산조사 및 말실재산 환수, 임대현황조사 등을 통한 부동산 관리 강화, 사찰에 설립이 눈여겨볼 만한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비지정문화재의 문화재지정 사업, 불교문화 인명 및 단체 실태조사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총무원 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1억9천여만원이 증액돼 다소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 문화부

사지와 성보에 대한 발굴·조사·보존·지정 업무를 수행할 '불교문화유산 발굴조사단' 설립이 눈에 띄어 보인다.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비지정문화재의 문화재지정 사업, 불교문화 인명 및 단체 실태조사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총무원 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1억9천여만원이 증액돼 다소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부

주요사업으로 불교사회교육원 설립을 추

진한다. 불교사회교육원을 통해 불교사회시민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수립해 불교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인권·환경단체의 연대, 사찰환경보존 및 환경친화적 사찰만들기, 외국인 사찰체험 프로그램 확대, 2002년 월드컵 불교 자원봉사단 조직 등도 주요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승가복지사업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계획 수립,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수탁에도 관심을 높이는 계획이다.

■ 호법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해중세력의 준동 예방, 성보 도난 및 훼손 방지, 신원조회 업무를 강화해 승풍을 진작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종단 사태를 수습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감찰 및 예방업무 강화할 방침이다.

■ 교육원

내년을 교육진흥의 해로 정하고 행사교육 내실화, 기본교육 관리 강화, 중앙승가대 운영 종합대책 수립, 전문교육기관 관리 강화, 재교육의 다양화를 핵심사업 방향으로 정했다. 상설행자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초 조사도 중요한 사업이다.

사미니 기본교육기관의 증설, 기본교육기관 미입학자에 대한 학업이수 독려 및 학업이동질서 확립을 위한 학사관리 통일, 의제 실시 및 졸업자격조사 시행을 통한 기본교육 강화도 올해에 이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중지종풍 선양을 위한 조계종사(史)를 편찬할 예정이다.

■ 포교원

올해에 이어 내년도도 직장직능단체의 연합조직 건설 및 직장직능대회를 통해 조직의 골격을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신도교육 의무화에 따라 일선 사찰에서의 신도교육 정착을 위한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군포교와 관련해서는 군법당 건립지원금을 삭감하는 대신 군승복별교구 설치 등 군승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수도권 포교를 위한 전법도량 지정 사업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 포교원

올해에 이어 내년도도 직장직능단체의 연합조직 건설 및 직장직능대회를 통해 조직의 골격을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신도교육 의무화에 따라 일선 사찰에서의 신도교육 정착을 위한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군포교와 관련해서는 군법당 건립지원금을 삭감하는 대신 군승복별교구 설치 등 군승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수도권 포교를 위한 전법도량 지정 사업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사면논의 빠를수록 좋다

정대승 '일괄사면' 입장 밝혀 대상자도 '종단정치 불간여' 약속

새 총무원장 정대승의 첫 중점사업이 될 사면의 폭은 어느 정도일까. 정대승이 당선 인사차 해암종정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일괄사면' 입장을 밝혀 대폭적인 사면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원당암을 찾은 정대승과 해암사이에서는 사면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 그러나 해암종정이 미국에서 돌아온 지난 5일, 정대승은 지난 해 정화개혁회의 핵심인사에 대한 사면 얘기를 꺼내놓고 종정스님의 의향을 물었다. 해암스님은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암스님 또한 미국에 체류중인 9~10월 지난 해 정화개혁회의에 가담해 중징계를 당한 한 스님을 만나 종단화합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승은 이날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을 비롯해 원로스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면 얘기를 구체적으로 꺼냈다. 법전스님이 "화합종단 구현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먼저 사면 얘기를 꺼냈다. 이어 봉주스님이 "종단분규와 관련해 징계를 당한 스님들에 대한 대대사면을 단행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정대승은 "10년 동안만 분규가 없어도 불교는 다시 번성한다. 종단의 화합을 위해 어떤 불사보다 먼저 사면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정대승은 또 "누구는 사면하고 누구는 묶어두는 식의 사면으로는 분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대폭적인 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미 사면 대상자인 두 스님들과는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만나 의견교환 이상의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사면 대상자인 한 스님의 측근은 "종단정치 불간여, 사면 전 참회 등 전제조건에도 응한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대승 취임 이후 사면논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면 논의를 길게 끌 경우 또다른 오해를 낳고 결국 화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면 논의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해암종정이 10월 7일 종단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교시 가운데 "금반 발생한 종단 마장은 승가 발전의 좋은 기회이니 사부대중들은 환희극복하여 화발결실(花發結實)토록 하라"는 내용을 사면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다.

정성운 · 이윤호기자



○조계종 중정 해암스님(왼쪽)과 새 총무원장 정대승이 해인사 원당암 경내에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당선인사를 하기 위해 원당암을 찾은 정대승에게 해암스님은 "율원을 활성화해 종단의 기강을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조계종 해암종정 동안거결제 범어

爲結制也入地獄이요 未結制也入地獄이니
透脫一句作發生과 良久云云
禪寂相逢元故舊나 親和同契趙州茶로다.
臨濟亂喝은 狂人演劇聲이요,
德山瞎棒은 盲人影打刀로다.
靈鷲拈化에 滅却正法眼藏하고
小林傳法에 斷盡別傳命脈이로다.
三世諸佛과 歷代祖師가 入地獄如箭射하니
且道如何.
一着이 落在什麼處오.
金剛山色은 千古秀하고 萬瀑洞天은 萬世明이로다.
曠

결제하여도 지옥에 떨어지고
결제를 못하여도 지옥에 떨어지니
튀어나는 한 마디는 어떠한가
(잠시 묵묵한 후에 말하였다)
선원에서 서로 만나니 본래 옛 친구라.
서로 기본 총계 같이 조주차를 마신다.
입제의 요란한 함은 미친 사람이 연극하는 소리요.
덕산의 눈먼 방은 장님이 그림자를 두드리도다.
영취산에서 꽃을 들어 보이니 정법안장이 없어져 버렸고
소림굴에서 밥을 전하니 별전의 명맥을 끊어 버렸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가 지옥에 들어가
가시 쓴살같이
말해보라. 이 법문의 뜻이 어느 곳에 떨어져 있는가.

금강산 경치는千古에 빼어나고
만족동 하늘은萬世에 밝도다.
이

혼사를 앞둔 사람 앞에 무심코 농담으로 "암세포 증식 하는군" 했다가 상대방이 약간은 기분 나쁜 듯한 반응을 보여 무안했던 적이 있다. 끝없는 욕망 추구를 통해 생대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삶이 암세포와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말로 튀어나와 빛은 실수라고나 할까? 그 실수는 실수라 치고, 그런 식의 인간의 삶이 암세포와 같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암세포적인 삶을 청산하고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참생명의 실상을 깨우치고 실현하는 삶을 살려 해도 개인의 차원에서

공경받는 승보

삼계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당연히도 참생명을 실현해가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공동체의 이상도 제시해 주셨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우리말 삼귀의에는 아쉽게도 그런 공동체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 개개인으로서는 스님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것으로 승보를 보아야만 될 것이다.

출가승단은 불자들이 귀의해야 할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모델이요, 그러하기에 가

장 청정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 출가 승단이 본연의 모습을 잃는다면 그것은 단지 불교의 위상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이상을 잃는 것이 된다.

요즘은 조계종 사태의 흐름을 지켜보는 불자들의 눈도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내부의 문제를 정리하여, 청정성과 화합성을 온누리에 퍼서 세계를 바꾸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의 구심점으로 당당히 서기를 기대한다. 불자들 또한 올바르게 공경받을 수 있는 승보가 되기를 기원해야 할 것이다.

성태웅(건국대 교수·본지 논설위원)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새천년의 신비한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향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해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키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해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혜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피로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증성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해 동안 기분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말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마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향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 청정하고 복덕이 주축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식색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학불교대학 사업부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기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친신·지신·조상)
- 불결한 정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중국 황제가 천하제일 향으로 인정한 보원향 처방입니다. 보배중에 가장 으뜸으로 인정한 향입니다.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힘의 질을 높이고 보원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후에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 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맑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스님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꼭 달라질 새천년의 신비한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인정받은 식색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향을 가까이 했을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분자담, 삼보담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학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약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

제조원: 만복당(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47-2)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학불교대학 사업부 해인선원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4-5828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한빛은행 550-046374-02-003

에 금 주: 김정순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